

오케스트라로 앙상블로 빛는 금빛

서귀포관악단 정기 공연
김진선 피아노 협연 맡아
골든브라스 정기 연주회
금관의 에너지·서정 담아



제10회 정기 연주회를 펼치는 골든브라스앙상블. 골든브라스앙상블 제곡

제주를 '관악의 섬'이라고 했을 때 한 축에 연주자들이 있다. 관악을 이야기하고 즐기는 관객들이 늘어 나려면 공연부터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계절에 윈드오케스트라로, 앙상블로 금빛 선율을 빛내려는 무대를 만나 보자.

'제주 관악의 자존심'인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이 이달 18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92회 정기 연주회를 펼친다. 이동호가 지휘하는 이날 연주는 제주 해녀의 노동요 선율에서 로마의 이국적 정취까지 닿는다. 지난 3월 개최된 2026 제5회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 2위 입상곡 조주연의 '잡네'로 음악회의 문을 연 뒤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보리스 코제브니코프의 '교향곡 3번 슬라비아안스카야',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을 차례로 들려준다.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은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며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인 김진선의 협연으로 피아노의 기교와 관악단의 풍성한 색채가 어울린 무대를 보여준다.

"현재 진행형의 젊고 균형 잡힌 연주 단체"라는 골든브라스앙상블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제10회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역동적이고 밀도 높은 연주자들이 모여 2012년 창단했고 2017년 첫 정기 연주회를 열며 본격적 출발을 알렸던 이들이 '열 번의 순간, 하나의 울림'이란 이름 아래 금관 앙상블의 힘과 에너지에서 정성을 엮은 곡들을 펼친다.

10번째 정기 공연을 축하하듯 팡파르풍의 작품들이 눈에 띈다. 공연 프로그램은 엔리케 크레스포의 '스피릿 오브 브라스(Spirit of Brass)'와 '여리고의 나팔', 루이지 바시의 '클라리넷을 위한 리콜레토 환상곡' (협연 김동현), 프레데릭 마글레의 '팡파르와 찬가' '하늘을 향하여', 금관 5중주 편성으로 들을 수 있는 코우다 마사토의 '영웅의 증표', 사카이 이타루의 '7월 7일의 밤'이다.

연주자는 14명. 이 중에서 8명이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단원들이다. 모두 제주대에서 관악을 전공한 이들로 선배들이 음악으로 뭉쳤다.

노을 타는 삶의 바다에서 길어 올린 기억

강정만 산문집 '... 문장들'
매일 분량 정해 글쓰기 작업
고향·나이·문학 이야기 등
2022년 이래 50여 편 추려



그는 2021년 12월 말 돌연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리고선 이듬해 1월 1일부터 원고 매수를 정해 A4 용지 1장 반 정도의 글을 매일매일 쓰고 있다. "펜 끝이 얼어붙어 단 한 자도 나아가지 못하던 고통이, 문장의 수액으로 흘러내릴 때, 나는 비로소 어떤 '희열'에 젖어 들었고, '써야 할 이유'를 넘어 '살아야 할 이유'를 기어이 마주할 수 있었다." 그에게 요 몇 년은 "수십년간 남의 이야기를 갈무리해 기사를 짜깁기하다 비로소 나의 글을 짓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강정만 산문집 '저물지 않는 제주바다의 문장들' (도서출판 황금알)은 그렇게 나왔다. 2022년부터 인터넷 신문 제주헤럴드 등에 올렸던 글 중에서 50여 편을 골라 묶

음을 붙잡는다. 때로는 쓴소리도 던진다. "문예지를 통해 등단했다는 이들의 일부 글을 읽으며, 나는 종종 멍청하게 된다. 이 글들이 과연 '문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작품'이라 불리며 계속 이어져도 될 만큼의 밀도를 갖추고 있는가. (중략) 내가 믿어 온 문단은 문학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장터가 아니었다" ('문단은 언제부터 장터가 되었나' 중에서)고 말한다.

산문집 맨 앞자리 '2023년 7월, 바다와 섬과 카페'에서 말미에 놓인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 전'-글 동무들의 송년회까지' 등 거의 모든 글에는 바다가 있다. 서귀포시 '불목리' (보목동 출신들은 '보목리'를 꼭 이렇게 부른다)가 고향인 그는 난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 풍경 속에 살았다. 바다 앞에선 섭섭함, 원망 따윈 잊었다.

그 바다가 키웠을 문학적 감수성은 김승옥, 황순원, 천상병, 카뮈, 하루키 등을 불러내고 한기팔, 오승철, 문무병 등 제주 시인들의 이

름을 붙잡는다. 때로는 쓴소리도 던진다. "문예지를 통해 등단했다는 이들의 일부 글을 읽으며, 나는 종종 멍청하게 된다. 이 글들이 과연 '문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작품'이라 불리며 계속 이어져도 될 만큼의 밀도를 갖추고 있는가. (중략) 내가 믿어 온 문단은 문학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장터가 아니었다" ('문단은 언제부터 장터가 되었나' 중에서)고 말한다.

한라일보 편집부국장 등을 지냈고 지금도 현업 기자인 그이지만 어느덧 70대의 나이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노을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산문집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노인'으로 칭하면서도 평소 탐독하던 책이 일러준 메시지를 마음에 담는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라"는. 그는 오늘도 새벽 조강과 글쓰기를 신앙처럼 받들며 삶이라는 바다에서 사색의 문장들을 길어 올리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쏘지

해녀박물관 20주년 특별전

해녀박물관 개관 20주년과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특별전이 이달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박물관 2·3층 특별 전시 공간에서 이어진다. '숨비소리 20년, 바다의 기억을 담다'란 제목의 특별전은 유물과 사진, 영상 자료로 해녀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24일 오후 2시 기념행사에선 하도 해녀합창단 공연, 이호동 고명호 해녀가 전하는 '젊은 해녀가 겪은 바다 환경 변화', 이성은 작가의 '해녀 사진작가의 20년 기록 이야기'가 준비됐다. 앞서 박물관 1층에서는 개관 20주년 기념 한일 공동 기획전 '섬에서 태어나 해녀로 산다-제주·영도·쓰시마'전(5월 19-7월 26일)이 진행 중이다.

비아아트 홍시야 작가와 만남

제주시 원도심 대동호텔 1층 비아아트(제주시 관덕로15길 6)에서 이달 19일 오후 3시 홍시야 작가와의 대화가 열린다. 이는 홍시야 개인전 '다섯 개의 리듬, 숨으로'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지난 5월 22일 시작돼 이달 30일까지(낮 12-오후 8시 관람 가능) 이어지는 개인전에는 20여 점의 회화와 100개의 바다 드로잉이 펼쳐지고 있다. 작가와의 대화는 김연주 기획자(문화공간 양)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존과 공명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온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다섯 개의 리듬인 목(나무), 화(불), 토(흙), 금(맺힘), 수(물)를 어떻게 시각 언어로 풀어냈는지, 그 의미와 작업 과정을 나눈다.

제주음악협회 신인 음악회

제주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과 도전이 펼쳐지는 무대가 있다.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이달 19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진행하는 '2026 신인음악회'다. '호프(HOPE)'라는 부제를 단 이날 음악회에는 지난 4월 실시한 오디션에 거쳐 선발된 김우연(클라리넷), 김경남(마림바), 오수지(플루트), 양은비(바이올린), 김혜미(피아노)가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하대식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교수가 지휘하는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춰 차례로 협연에 나선다. 제주음악협회에서 주최·주관한 제34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한 남연우(오보에) 학생도 특별 출연해 협연을 벌인다.

제주 책동네

양창식 시집 '독백의 시간'

탐라대 총장을 지낸 양창식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독백의 시간' (인문학사출판사)을 냈다. 시집에 실린 시는 70여 편. 표제시처럼 소통을 갈망하면서도 끝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숙명을 고요하고 따스한 언어로 풀어낸 시편들이 펼쳐진다. "끝내 남은 것은 자기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 조용한 독백의 순간들이었다" ('시인의 말')고 했다. 제주라는 공간과 자연에 대한 서사도 담겼다. 시인은 해녀 봉순네, 돌쟁이 삼촌, 월령리 아침 등을 노래하며 비극적 역사와 삶의 고단함을 딛고 일어난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이명혜 동시집 '다시 웃는 꽃'

제주 이명혜 작가가 동시집 '다시 웃는 꽃' (한그루출판사)을 펴냈다. 김보람의 그림이 더해진 동시집은 아이들처럼 낮고 작은 것에 눈길을 주고 말을 건네면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모두 모두 꽃 세상이다'에서 '은 세상 쏟아지는 햇살'까지 모두 5부에 걸쳐 80편의 동시를 수록했다. 책머리에 놓인 '작가의 말'에서 시인은 처음 할머니가 되게 해 준, 태어난 지 30일 된 아이의 이름을 돌쟁이 삼촌, 월령리 아침 등을 노래하며 비극적 역사와 삶의 고단함을 딛고 일어난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문학지 '돌과바람문학' 발간

돌과바람문학회의 '돌과바람문학' 2026 봄호 (통권 18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회원 창작시 70여 편을 비롯해 동화, 단편 소설, 희곡, 수필 등을 실었다. 회원 작품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물,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 등을 소재로 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던 이창휘 변호사를 소재로 한 희곡 작품 후속편이 실렸다. 양영길 문학박사의 시 창작을 위한 지상 강좌도 담았다. 돌과바람문학회 양영길 회장은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지망생들이 투고할 수 있는 공간도 이번 호부터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다.

제주출발 주말 감성 선유도 여행

선유도 + 전주한옥마을 + 옥정호 출렁다리

1일차: 제주공항 출발(08:20) - 광주공항 도착 - 곡성 기차마을 - 중식 - 옥정호 출렁다리 및 봉어섬 생태공원 - 전주한옥마을 - 석식 -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조식(호텔식) - 선유도 유람선 - 중식 - 체석강 - 광주공항 출발(18:20)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입장료, 식사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6월 27일, 7월 4일, 11일, 18일

영화속 주말여행 왕과 사는 남자

장릉 + 청령포 + 충주호유람선 + 도담삼봉

1일차: 제주공항 출발(08:10)-청주공항 도착 - 단종의 장릉 - 중식 - 청령포 유배지 - 석식 - 호텔 투숙

2일차: 조식(호텔식) - 충주호 유람선(장화나루) - 중식 - 도담삼봉 - 본초다담(한방죽목+한방차) - 청주공항 출발(18:55)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 3인1실 485,000원 | 4인1실 480,000원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6월 20일, 27일, 7월 4일, 11일, 18일

주말 실속 여행 1박2일

장성+익산+광주+무안+목포

장성백양사

익산 아가페정원 | 광주 | 무안 전통생태테마파크

Day1: 제주공항 출발(08:20)-광주공항 도착 - 장성 백양사 - 중식 - 익산 아가페정원 - 고스락(커피비용 개인부담) - 교도소 세트장 - 석식 - 광주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Day2: 조식(호텔식) - 무안 전통생태문화 테마파크 - 목포 유람선 - 중식 - 목포 해상케이블카 - 광주공항 출발(18:20)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7월 4일, 11일, 18일 (단, 3회)

주말 환상 여행 1박2일 (토~일)

청주·단양·영주·안동

1일차: 제주공항 출발(08:10) - 청주공항 도착 -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모노레일) 중식 - 영주 부석사

2일차: 조식(호텔식) - 안동 하회마을 부용대 전망대 중식 - 안동 중앙시장 - 청주 초정행궁(죽목)

제주공항 출발(18:55)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여행 요금 (1인 기준, 2인1실)
2인1실 489,000원 3인1실 485,000원 4인1실 480,000원

포함내역: 왕복항공료(유류대포함), 호텔료(전일정), 식사료(전일정), 관광지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단 3회 특가) 7월 4일(토) 7월 11일(토) 7월 18일(토)

제주자유여행사 협찬 | JEJUair 제주항공 문의 064-744-9111